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

부조리! '인과 법칙'과 같은 과학적 혹은 논리적인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들이란, 행악자나 위선자(외식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누리며 잘 되는 일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비슷한 신학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어째서 거짓선지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잘 되고 자신은 고통받는가? 어떻게 더 악한 나라인 바벨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될 수 있는가? (렘 12:1~4)'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반드시 행악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0~51장).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더 열악한 상황에서 더 강한 것과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내고 늘 준비하고 있으라 요구하십니다(12:5이하). 사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든지 혹은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망합니다(52, 44장).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 메데-바사 연합군에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조리함을 행복한 결말로 바로잡으실 때도 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여인 안티(Yanti)는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진정한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번역 선교 이야기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9/3	9/4	9/5	9/6	9/7	9/8	9/9
렘 36-38	렘 39-42	렘 43-44	렘 45-47	렘 48-49	렘 50	렘 51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안티가 목사가 되려 했던 동기는 사람들에게서 존경 받기 위함이었고, 심지어 그녀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천국 입장권을 얻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자유분방한' 생각으로 신학교를 나온지 일 년 뒤에 우연히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그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안티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역을 찾던 중 성경번역선교사 론과 재키 휘슬러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론의 제안에 따라 자기 모어()인 '마나도' 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공부 할 때는 성경에 대해 조금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번역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또 그분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되었어요." 특히 모어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본문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자신과 같은 마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모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설교도 많이 좋아

졌습니다. 저희 말로 된 성경이 얼마나 귀하게 말씀하시는지, 이토록 제 마음을 만져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어 성경은 저를 만지시고 제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제가 그 말씀으로 우리 부족의 다른 분들을 만져드리고 축복하도록 해주십니다." (이전 Wycliffe Global Alliance 웹페이지에서 인용)

지금 안티는 20년 넘는 성경번역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위원과 교수로 다른 민족들의 성경번역 사역과 선교사 후보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적을 그녀의 남편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2010년 라마단 기간에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식당들이 문을 열지 않는 데 분개한 나머지, 그는 엉뚱하게 그럼 자신도 금식 기도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바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안티는 완전히 바뀐 남편으로 인해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기대합니다!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주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높으시고 온전하신 뜻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라도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사역자들과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성경 번역 삶의 변혁 Translating Scripture, Transforming Lives





"Absurd(?) God!"

words by Gyoojun Lee & illustration by Yaeun Kim

Absurdity! There are so many instances people cannot understand only with the so called scientific or logical way, 'cause and effect.' To Christians, it would be evil-doers and hypocrites' prospering on this earth with material blessings. Jeremiah was struggling with the same kind of theology. 'How could false prophets and their followers do well while he was suffering? How could Babylonians who were worse become God's rod to punish the Israelites, His chosen people?' (Jeremiah 12:1-4)

God made it sure to him that he would judge those evil-doers in his time (Ch. 50-51). But He asked Jeremiah to take courage and prepare to compete with stronger powers in more adverse situations (12:5 ff). In fact, the Israelite people who followed the false prophets were taken to Babylon (Ch. 52) or fled to Egypt (Ch.44), and Babylon finally was defeated by Medo-Persian allied army in 539 BCE.

But there is a different type of absurdity God deals with an happy ending. There was an Indone-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Sep 3	Sep 4	Sep 5	Sep 6	Sep 7	Sep 8	Sep 9
Jer 36-38	Jer 39-42	Jer 43-44	Jer 45-47	Jer 48-49	Jer 50	Jer 51

sian lady who graduated a seminary though she was not a real Christian. Her motivation to become a pastor was to have respect from people and even becoming a Christian only meant getting a pass to enter the Heaven.

A year later after she graduated from the 'liberal' seminary, she happened to attend a Christian seminar. She was stunned when God spoke to her through Jonah's story. She confessed her sin and converted, dedicating herself to God's calling. She tried to find a God-called ministry and was led to a Bible translator couple, Ron and Jacqui Whisler. She accepted Ron's proposal to become a mother-tongue Bible translator.

"When I studied theology, I knew little about the Bible. But I know God and the Bible much more in depth now through Bible translation." By studying the Scriptures in her mother tongue, she finally understands the true meaning of the text, and she is encouraged every time she reads the Bible. Also, as a pastor, she is able to explain the word of God to other *Manado* people.

"Since I became a mother tongue translator, I have improved a lot in preaching. The Bible in my own language speaks clearly to me and God's word has never been so touching. Mother tongue Scripture touches me and blesses me first, so that I can also touch and bless others." (For more, <http://www.wycliffe.net/stories/tabid/67/Default.aspx?id=4153>)

Now she has become a translation consultant and serves other translators with her experience of over 10 years in Bible translation. God also gave the same miracle for her husband at the same time. He became a Christian during the Ramadan in 2010. He was angry because all the restaurants were closed. He interestingly decided to fast and pray, just out of anger. But God used this chance to speak to him through His Word. He repented and committed his life to Jesus immediately. Yanti is so thankful for her fully transformed husband!

Praise the Lord and expect Him, who works among us far beyond our understanding!



Week 36 Prayer: . Lord, we thank You for Your good, exalted, and perfect will toward us! May we and all Your servants be those who trust in You and press forward, believing that You work all things together for good, even when we cannot understand everything.